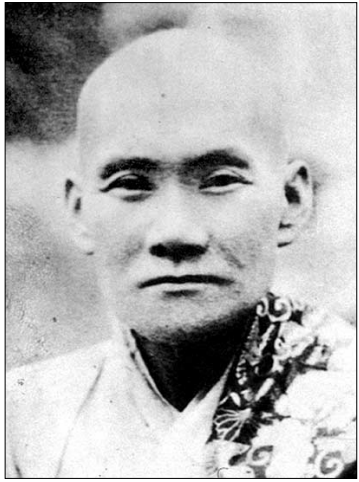


한암 스님 사상 조명한다

월정사, 내년 10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달았다. 이후 95년 당시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이 문도들의 뜻을 모아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을 간행하기도 했다.

월정사는 이 외에도 화천군과 함께 한암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조성한다. 화천군은 지난 9월 기본설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86번지 일대 외 4개 지역에 한암 스님 생가 및 기념관, 수련관, 계성사지 복원 사업을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암 스님 재조명 작업은 월정사와 한암문도회, 한암사상선양회(가칭)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월정사 박재현 기획처장은 "한암 스님은 계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승가 5칙'을 제정하는 등 근세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이었다"며 "우리시대의 바른 승가상을 찾기 위해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다"고 밝혔다.

경허·만공·수월 스님과 함께 근세에 선풍을 중흥시켰던 한암당 중원(漢岩堂 重遠) 대종사는 현 계정종 전신인 조선불교 조계종 1대 종정 등을 역임하고 한국전쟁 때 온몸으로 상한사를 지켜내는 등 수행자의 귀감이 되다 1951년 좌탈(坐脫)에 들었다.

남명우 기자

평장 월정사(주지 정법)가 한암 스님(사진)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를 내년 가을에 개최한다.

월정사 교구종회는 12월 14~15일 덕구온천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정기총회에서 2006년 주요 사업으로 '한암대종사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0월 경 열릴 학술세미나에서는 국내 학자 뿐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해 우리시대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이란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월정사측은 한암 스님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한암 스님은 이야기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발록(一鉢錄)>한 권을 남겼는데 그마저 1947년 불, 상한사에 불이 났을 때

성금모아 불우이웃에 쌀 전달



옥천 종합상가 지역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 옥천사암련 스님들.

충북 옥천사암련협회(회장 지원)는 연말 연시를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12월 20일 옥천읍을 돌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했다.

옥천사암련 '자비의탁발' 행사

옥천군청에서 출발해 종합상가-옥천역-옥천경찰서-옥천읍사무소까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옥천사암련 회장 지원 스님(대림선원 주지)과 부회장 명안 스님(대약사사 주지)을 비롯해 총무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재무 우담 스님(해안사 주지)·감사 의당 정사(도탈삼인당) 등 사암련 집행부와 지역 사찰 주지 14명이 동참했다.

옥천사암련은 이날 행사를 통해 모금한 328만원으로 쌀을 사서 27일 옥천군에 전달했다. 옥천사암련은 4년 전부터 해마다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해왔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같이 지역민 대하길...

광주시청불자회 창립 1주년

광주시청불자회(회장 이호준)는 12월 18일 창립1주년을 맞아 시청 회의실에서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대종사 천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광주사암련회장 혜향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련과 박광태 광주시장, 불자회원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호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회가 창립하고 청사를 옮기는 바쁜 일정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이어와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며 "각 구청 불자회의 창립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음성공양을 펼쳤다.

한편 시청불자회는 이달부터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세미나실에서 기초교리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전등사 해넘이·신년맞이 행사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은 12월 31일 해넘이 행사 및 신년맞이 타종식 행사를 개최한다.

저녁 9시 법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날 행사는 L.M.B 합창단, 국악인, 인기가수 등이 참석해 공연 한마당을 펼친다.

이어 자정에는 계성 스님, 각급 기관장, 학생 대표,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갖는다. 계성 스님은 "하루를 한 해처럼, 한 해를 하루처럼 변함없이 가꾸어 가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32)937-0125

한명우 기자

강화 선원사 스케이트장 개장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인 인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사 조만간 썰매·스케이트장을 개장한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설되는 썰매·스케이트장은 5천여 평 규모의 선원사 연꽃연못에 마

련된다.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겨울철에 연꽃연못을 활용한 방안을 생각하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썰매·스케이트장을 생각해 왔다"며 "현재 연꽃연못에 물을 대놓았기 때문에 얼음이 어는 대로 곧 개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2)933-8234

한명우 기자

'원효' 촬영장 법주사 인근에

보은군은 법주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내속리면 사내리 청소년영양정에 영화 '원효대사' 세트장을 조성키로 영화제작사인(주)더존필름과 구두합의하고 이달 중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그리게 되는 이 영화는 내년 3월 촬영에 들어가 2006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개봉할 예정이며, 총제작비 85억원이 투입된다.

법주사를 비롯한 보은군 사찰들은 영화 촬영장이 조성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침체된 지역불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공주 영평사

문화포교·신행활성화 앞장



지난 10월 영평사에서 열린 청소년 세시풍속 놀이마당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새끼를 꼬며 즐거워하고 있다.

겨울 영평사는 한가롭다. 넓은 대웅전 앞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하다. 대웅전 옆의 거대한 아미타불은 부드러운 미소로 세상을 내려다본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사람들의 발길은 이맘때면 겨울잠을 잔다. 세상사를 모두 잊을만한 여유로운 영평사의 겨울은 그렇게 또 다른 '맛'이 있다.

영평사는 구절초 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10월 한 달간은 연인원 3~4만 명이 영평사를 찾는다. 산사음악회와 각종 예술품 전시회 및 시낭송회가 구절초와 어울려 한바탕 신명나는 잔치가 벌어진다.

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다도, 서예, 예절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전국 최고의 '문화도량'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만은 아니다. 충신도회인 '영평공덕회' 아래 영불수행을 하는 백련회, 자원봉사단, 장학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평식품'은 영평사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사찰의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영평식품은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류와 죽염 등 토종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단오제·구절초 축제 등 사시사철 잔치 한마당

최근 영평불교대학 개설, 신도 수준 업그레이드

물론 가을에만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봄에는 진달래 철쭉 금낭화 제비꽃 등이 영평사를 수놓고, 여름에는 옥잠화 수국 백련 등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청량하게 해준다. 겨울만 빼면 영평사는 늘 꽃동산이다.

가지가지 꽃만큼이나 다양한 행사도 많다. 템플스테이는 사시사철 계속된다. 음력 5월 단오절에는 장포들에 머리감기, 떡치기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단오제를 개최한다. 여름에는 어린이 불교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강탐사가 열린다. 구절초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공주시민, 학생, 교사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세시풍속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운영하는 청

12월 초에는 영평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신행활성화에 나섰다. 봉사활동, 수행을 위주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수준과 신심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평사 인근 땅 한 평 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근래 들어 대중전 빛산의 소유주가 나무를 베는 등 사찰환경을 훼손하자 신도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주지 환성 스님은 불교대학 강의를 직접 하면서 내년 한 해 계획을 세우려 한 금강탐사가 열린다. 구절초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공주시민, 학생, 교사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세시풍속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운영하는 청

1854 글·사진/공주=한명우 기자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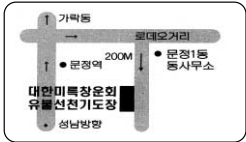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문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龍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인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경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활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